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디모데전후서 —

김경식*

1. 디모데전서 2:6

GNT ⁵	ὁ δοὺς ἑαυτὸν <u>ἀντίλυτρον ὑπὲρ πάντων</u> , τὸ μαρτύριον καιροῖς ἰδίοις.
『개역개정』	그가 <u>모든 사람을 위하여</u> 자기를 <u>대속물로</u>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새번역』	그분은 <u>모든 사람을 위해서</u> 자기를 <u>대속물로</u> 내주셨습 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공동개정』	그분은 자기 자신을 <u>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u> 바치 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새한글』	그분이 <u>모두를 죄에서 풀어 주기 위한 몸값으로</u> 스스로 를 대신 내주셨네.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신 증거라네.

1.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 ‘모든 사람을 위하
여’ 자신을 주셨다고 번역합니다. 『공동개정』도 비슷하게 ‘모든 사람을 위
한’ 죽음이었다고 번역합니다. 『새한글』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번역합니다.

* University of Aberdee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학교 교수. kkshik0225@wgst.ac.kr.

(2)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똑같이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 ‘대속물’의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그리스어 ἀντίλυτρον을 ‘대속물’로 번역한 것입니다. 반면에 『새한글』은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몸값’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또한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그리스어 전치사 ὑπέρ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새한글』은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대신’이라는 말을 사용해 번역에 반영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NET, ESV 그리고 NIV는 모두 이 구절을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이라고 번역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모두(all)’를 위한 죽음이라고 번역합니다. NIV는 all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all peopl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번역본(NET, ESV, NRS, NIV)은 그리스어 전치사 ὑπέρ를 ‘for’로 번역해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죽음임을 이 전치사를 통해 밝힙니다.

(2) NET, ESV, NRS 그리고 NIV는 모두 예수의 죽음이 가진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 ἀντίλυτρον을 ‘ransom’이라고 번역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as ransom’이라고 번역한 반면, NRS는 전치사 as가 없이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로 번역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영어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영어 번역본들은 ἀντίλυτρον을 ‘ransom’이라고 번역한다는 점에 일치합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새한글』은 이 구절을 ‘그분이 모두를 죄에서 풀어 주기 위한 몸값으로 스스로를 대신 내주셨네.’라고 번역합니다.

(1)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 대속물이라고 번역한 ἀντίλυτρον을 『새한글』은 ‘죄에서 풀어 주기 위한 몸값’이라고 명확하게 번역합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칠십인역(이하 LXX)과 신약성경을 통틀어 디모데전서 2:6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 λύτρον은 LXX와 복음서에 사용됩니다(마 20:28; 막 10:45). λύτρον이나 ἀντίλυτρον은 종살이하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몸값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죄에서 풀어 주기 위한 몸값’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비유언어를 사용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온 비유인 입양(adaption), 법정에서 온 비유언어인 칭의(justification), 인간관계에서 온 비유언어인 화목(reconciliation), 그리고 노

예시장에서 온 이미지인 구속(redemp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6에서 사용하는 몸값은 노예시장에서 온 비유언어입니다.

(2) 『새한글』은 전치사 ὑπέρ가 지닌 ‘대신(substitution)’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새한글』은 ‘대신’ 주셨다고 번역합니다. 기존 한글 번역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로 애매하게 번역한 것에 비해, 『새한글』은 예수의 죽음이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내주는 죽음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ὑπέρ) 죽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디모데전서 2:10

GNT ⁵	ἀλλ' ὁ πρέπει <u>γυναῖξιν ἐπαγγελλομέναις θεοσέβειαν</u> , δι' ἔργων ἀγαθῶν.
『개역개정』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u>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u> 마땅한 것이니라
『새번역』	<u>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u>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동개정』	오직 착한 행실로써 단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u>하느님을 공경한다는 여자에게</u> 어울립니다.
『새한글』	<u>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로 공언한 여자들에게</u> 어울리는 것, 곧 선한 행동으로 꾸며야 하네.

2.1. 차이점 관찰

(1) 그리스어 θεοσέβειαν을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로 번역합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하나님을 공경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새한글』은 이 명사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라고 번역합니다.

(2) 그리스어 분사 ἐπαγγελλομέναις를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공동개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개역개정』, 『새번역』) 혹은 ‘한다는’ (『공동개정』) 정도로 번역합니다. 반면에 『새한글』은 ‘공언하다’로 번역합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NET 2판(이하 NET²)과 NRS는 θεοσέβειαν을 ‘reverence for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NIV는 이 단어를 ‘to worship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ESV

는 이 명사를 ‘godliness’라고 번역합니다.

(2) NET², NRS, NIV, ESV는 ἐπαγγελλομένοις를 공통되게 ‘prof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새한글』은 다른 한글 성경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혹은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θεοσέβεια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라고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θεός)와 예배하다 혹은 경의를 표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σέβω)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신약성경과 칠십인역(그리스어 구약성경)을 통틀어 디모테전서 2:10에만 나오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의 경외함 혹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번역하면 이 단어가 가진 어원적 의미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라고 번역해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경외하다 혹은 공경하다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라고 번역한 『새한글』은 한문 표현인 공경이나 경외보다 이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번역입니다.

(2) 『새한글』은 기존 한글 성경의 번역들에 전혀 반영이 안 된 ἐπαγγελλομένοις를 공언하다는 말로 번역합니다. 디모테전서에서 바울은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기로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한다는 의미를 가진 ‘공언하다’라고 번역해 이들의 약속이 단지 하나님과의 일대일 약속일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신자 앞에서 한 공적인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번역을 합니다.

3. 디모테전서 4:2

GNT ⁵	ἐν ὑποκρίσει ψευδολόγων, <u>κεκαυστηριασμένων</u> τὴν ἰδίαν συνείδησιν,
『개역개정』	자기 양심이 <u>화인을 맞아서</u>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새번역』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u>낙인이 찍힌</u>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개정』	이런 교설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새한글』 그러한 가르침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 뿌리를 둔 것이지. 그 양심이 불로 지저진 듯 마비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들 말일세.

3.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은 양심과 연관된 그리스어 분사 *κεκαυστηριασμένων*을 ‘화인을 맞았다’고 번역하고, 『새번역』은 ‘낙인이 찍혔다’고 번역합니다. 이 두 번역은 양심에 인장이 찍힌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2) 『공동개정』은 이 단어를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라고 번역해 인장을 노예가 되는 상징으로 보고 인장을 찍는다는 말과 함께 사탄의 노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3) 반면에 『새한글』은 ‘불로 지저진 듯 마비되어 있다’고 번역합니다. 인장을 찍는다는 의미보다는 불에 지저져 마비된다는 의미로 번역해 기존의 한글 번역본들과는 차별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NET²와 ESV는 둘 다 ‘whose consciences are seared’라고 번역해 양심이 ‘불에 태워지다’ 혹은 ‘불에 데다’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2) NIV와 NRS는 앞의 두 영어 번역본과 비슷하게 양심이 불에 태워지다(seared)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불에 달군 인장으로(with a hot iron)’라는 어구를 덧붙입니다. 그 결과 불에 달군 인장으로 양심을 태운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새한글』은 거짓 가르침을 퍼트리는 자들의 양심이 ‘불로 지저진 듯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번역합니다. 『새한글』은 다른 한글 번역들이 양심에 인장이 찍혔다고 번역하는 것과는 달리,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마비된 상태가 불로 지저진 듯한 상태와 같다고 번역합니다. 『새한글』이 번역한 그리스어 분사 *κεκαυστηριασμένων*은 ‘불로 태워 버리다’ 혹은 ‘불에 달군 인장으로 지저서 표시를 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상 거짓 가르침을 퍼트리는 자들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마비된 자로 위선적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단지 양심이 불에 달군 인장을 맞았다고 하면서 당시 노예들의 이마나 손에 인을 찍어

노예의 주인을 밝히는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새한글』에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사 κεκαυστηριασμένων은 완료시제로 과거에 벌어진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한글』은 ‘마비되어 있는’이라고 번역해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 디모데후서 3:16

GNT ⁵	πᾶσα γραφὴ θεόπνευστος καὶ ὠφέλιμος πρὸς διδασκαλίαν, πρὸς ἐλεγμόν, πρὸς ἐπανόρθωσιν, πρὸς παιδείαν τὴν ἐν δικαιοσύνῃ,
『개역개정』	<u>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u>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번역』	<u>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u>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공동개정』	<u>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u>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새한글』	<u>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u>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이네.

4.1. 차이점 관찰

(1) 『개역개정』, 『새번역』은 이 문장의 주어를 ‘모든 성경’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개정』과 『새한글』은 ‘성경은 전부가’, 혹은 ‘성경은 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그리스어 원문에 나오는 형용사 πᾶσα를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성경을 수식하는 어구로 번역했고, 『공동개정』과 『새한글』은 부사처럼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들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진 특별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의 특별한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 한글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새번역』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공동개정』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번역합니다. 반면에 『새한글』은 ‘하

나눔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새한글』은 하나님을 주어로 표기해 의미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NRS는 성경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NET²는 NRS와 흡사하게 'Every scripture is inspired by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와 조금 다르게 NIV는 'All Scripture is God-breathed'라고 번역했고, ESV는 NIV와 유사하게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2) 영어 번역본에서 성경의 성격을 'be inspired' 혹은 'be breathed'라고 표현하는가의 차이가 있으나, 이 동작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영어 동사 to inspire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 그림 혹은 시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준다'(Longman Dictionar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를 사용한 NRS와 NET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NIV와 ESV는 숨을 의미하는 'breath'라는 단어를 활용해 하나님의 숨이 성경에 깃들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새한글』은 성경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라고 번역합니다. 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θεόπνευστος)는 디모데후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 바울이 최초로 만든 단어로 생각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θεός)와 '바람이 불다' 혹은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πνέω)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수동태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즉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가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미 영어 번역본들에서도 숨(breath)을 이 구절의 번역에 포함해 번역했지만, 한글 역본들에서는 주로 계시, 영감, 감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한글』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라고 번역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은 성경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처럼 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유의한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번역, 역본 비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번역 차이.

New 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Comparison, 1 Timothy, 2 Timothy, Differences in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4년 9월 8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2일)